

강릉 정동항 신구간 전경. <강릉시청 제공>



바다와 함께 걷는 길 눈이 파랗게 물들겠네

강릉·속초·삼척 해안길

수십년 동안 군(軍) 철책에 막혀 통행이 금지돼 태곳적 신비를 간직한 강릉 정동삼곡 바다부채길과 속초 외옹치 바다항기로, 삼척 덕봉산 생태탐방로로 초대한다.

◇강릉 정동삼곡 바다부채길...

2300만년전 지각 변동 관찰

정동진 일대 해안 산책로인 정동삼곡 바다부채길은 군사시설로 2016년 개방되기 전까지 50여년 간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다. 2016년 10월 개방된 이곳은 2300만년 전 지각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안 단구(해안가에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지형) 관광지다.

바다부채길에서는 다양한 기암괴석이 만날 수 있는데 그중 '투구바위'가 가장 유명하다. 투구바위는 마치 투구를 쓴 장군의 모습과도 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 외에도 부채를 펼쳐놓은 모양의 부채바위, 촛대바위, 거북바위, 부부바위, 형제바위, 두꺼비바위 등 여러 기암괴석이 길 곳곳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천연기념물 제437호로 지정된 바다부채길은 매년 20만명 이상이 방문할만큼 인기 높은 관광지이며 2019년 1월 BTS(방탄소년단) RM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샷을 올려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삼곡항에서 정동진까지 이어진 기존 코스에서 정동항까지 640m를 새로 조성해 전체 길이를 3.01km로 늘렸다. 새롭게 조성된 구간에는 노약자나 장애인도 불편 없이 절경을 감상할 수 있게 계단을 없앴다. 또 해안산책로, 해상광장, 하늘계단 등 다양한 사진 명소도 마련했다.

軍 철책선에 수십년 통제됐다 일반에 공개

태곳적 신비 간직...천혜의 비경 자랑

해안길따라 조성된 데크 무장에 산책길

푸르른 산·청정 바다 어울려 힐링 명소 인기

정동 대표소와 삼곡 대표소 중 한 곳을 선택해 출발할 수 있으며 편도로 약 1시간 소요된다. 대표소 인근에는 정동진해변 주차장, 모래시계공원 주차장 등 무료 주차장도 조성돼 있다. 또 주변에 모래시계 공원, 정동진 레일바이크, 하슬라아트월드 등 관광지도 풍성하다. 하절기(4~10월)에는 오후 4시30분에, 동절기(11~3월)에는 오후 3시30분에 매표가 마감된다.

◇속초 외옹치 바다항기로...옥빛 동해바다가 발 아래

울창한 송림 군락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진한 솔내음을 내뿜는다. 파도 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숲속에서 내뿜는 피톤치드와 파도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몸속 깊이 파고든다.

속초시는 도심권에서 바다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산책로가 있다. 외옹치 바다항기이다. 바다항기로는 군(軍) 철책에 갇혀 있다가 수십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8년 4월 중공과 함께 개통한 외옹치 바다항기로는 총 길이 1.74km의 산책로다. 속초해수욕장 구간 850m와 외옹치구간 890m 등 2개 코스로 연결돼 있다. 외옹치 바다항기로는 왕복 1시간, 편도 30여분이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다. 경사가 급하지 않아 남녀노소 부담없이 이용하기에 좋다. 4월부터 9월 하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바다항기로는 구간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가볍게 걷

고 싶다면 속초해수욕장과 외옹치해수욕장 방면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절벽에 설치된 데크를 따라 시원한 바닷바람과 기암괴석에 부딪치는 파도소리, 천혜의 절경과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외옹치구간이 제격이다. 특히 외옹치 구간은 대나무 명상길, 하늘 데크길, 안보 체험길, 암석 관찰길 등 4개 테마 코스로 꾸며졌다. 안보 체험길에 둘러쳐진 해안 경계철책은 1970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설치했던 것을 일부 남겨 놓은 것이다.

굴바위, 지네바위, 마당바위 등 해안가에 형성된 기이한 바위들을 관람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속초를 방문한다면 꼭 방문해 보길 권해본다. 속초해수욕장 주차장과 외옹치항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외옹치 바다항기로 인근에는 속초의 대표 여항인 대포항과 작은 포구인 외옹치항, 속초해수욕과 외옹치해수욕장 등이 위치해 감성여행지로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 5월까지 425만여명이 외옹치 바다항기로를 찾았다.

◇삼척 덕봉산 생태탐방로...외나무다리서 삶의 균형 깨닫기

해동여지도와 대동여지도의 기록을 통해 본래 섬이었다가 후에 육지와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덕봉산은 산 모양이 물둑과 흡사해 '더명산'이라고 불렸다고 전해진다. 군(軍) 경계 철책을 철거하고 2021년 해안생태탐방로가 개방되면서 우리들에게 53년 만에 숨겨진 비경이 공개됐다. 대나무 숲이 우거진 산책로를 따라 전망대로 올라가는 내륙코스(317m)와 해상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코스(626m)로 구성돼 있다. 이 산책로를 따라 정상에 오르면 생대한 해풍과 함께 탁 트인 바다 풍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동해바다와 맹방해수욕장, 덕산해수욕장, 어촌마을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3곳의 전망대와 야간 경관조명, 투구등, 해안조망 공간이 마련돼 있다. 덕봉산을 연결하는 외나무다리는 맹방해변에서 마음전을 건너는 지점과 덕산해변을 가로 지르는 2구간으로 조성됐다. 아이들, 어른들, 모두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며 삶의 균형을 배우는 길이 되고 있다.

주변 명사십리 맹방해변과 마음전과 바다가 공존하는 덕산해변 등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는 덕봉산은 그 자체로 이채롭다. 옛부터 삼각주 형태로 자리 잡아 빼어난 경치가 주목받아 왔다. 맹방해수욕장의 끝자락, 덕산해수욕장 코 앞에 위치해 있고, 바다, 백사장과 연접해 있으며, 검은색을 띤 크고 작은 기암괴석이 마주 보면서 마치 수석정원처럼 펼쳐져 있다.

대나무 군락지가 형성돼 길을 오르면 바람과 파도 소리, 대나무가 서로 맞닿는 소리가 일품이고, 해발 50여m의 나지막한 산 정상이 330여㎡(100여평)에 달하는 평지를 이루고 있다. 산 아래 바다와 맞닿아 흐르는 마음전은 덕봉산과 함께 철새 도래지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덕봉산은 삼형제 산이라는 유래가 전해진다. 양양에 삼형제 산봉우리가 있었는데 바다로 떠 다니며 남쪽으로 흘러왔고, 그 중 만이 지금의 덕봉산이고, 둘째는 원덕읍에 있는 해망산이며, 셋째는 울진에 있는 비래봉이라 한다. 덕봉산 생태탐방로는 개장 이후 입소문을 타고 시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청정 바다와 마음전을 품어 안고 있는 덕봉산. 이제는 트레킹을 즐겨하는 고수들뿐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찾고 힐링하는 장소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광원일보=황민진·권원근·류호준·윤종현기자>



노을이 아름다운 덕봉산 생태탐방로길.

<삼척시청 제공>



덕봉산 생태탐방로 외나무다리는 맹방해변에서 마음전을 건너는 지점과 덕산해변을 가로 지르는 2구간으로 조성됐다. <삼척시청 제공>